



특별한 시대를 살며...



김병숙  
지음

2011 무 화 과

## 특별한 시대를 살며



1. 우주인 예수를 만나다.
2. 21세기와 새복음
3. 가까워진 천국
4. 신과 우주와 인간
5. 해와 달이 된 오누이
6. 청소년과 지구의 미래
7. 증산과 아쉬타 사령관
8. 히말라야의 예수와 붓다
9. 이상한 나라의 지구
10. 특별한 시대를 살며
11. 밀빠진 그릇이었나

김병숙  
지음

## 특별한 시대를 살며

출간일 2016년 8월 16일

지은이 김병숙

발행인 김병숙

출판사 무화과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594

휴먼시아 1단지 105-206

등록일 2018년 4월 3일 (등록번호:829-95-00580)

전 화 031-235-2547

E-Mail [jesusufo2@gmail.com](mailto:jesusufo2@gmail.com)

[cafe.naver.com/jesusufo5](http://cafe.naver.com/jesusufo5)

[blog.naver.com/jesusufo5](http://blog.naver.com/jesusufo5)

[homepage jesu-ufo.com](http://homepage.jesu-ufo.com)

© 무화과 2014년 5월

ISBN:979-11-87209-31-7

< 권두언 >

이번에 어버이신께서 마련하신 최대의 계획은 지구를 보호막 안에서 시리우스 성좌로 위치이동 시키는 것이다.

시리우스 우주인





### < 서문 >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서를 남긴 것은 16세기였고 같은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도 ‘격암유록’이라는 예언서가 만들어졌는데, 그 내용에 의하면 2016년부터 4년 동안(신유술해년)이 알곡과 쪽정이를 가리는 시기라고 했다. 예언이란 흔히 생각하는 점쟁이가 아니라 우주가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있고 따라서 지구의 운명도 대강은 아는 우주인들의 안내에 의해 쓰여진 것들이다.

그래서 2016년부터의 4년이 왜 중요할까를 생각해 보았다. 지구는 20세기 말에 광자대라는 특별구역에 진입했지만 홀로그래피라는 보호막 안에 있고, 그로부터 17년이 경과하면 방향을 바꿔 광자대를 떠나는 여행을 시작한다고 했다. ‘은하연합’의 대변인 **와슈타**라는 우주인이 알려준 사실이다. 광자대 안에서 천년 동안 머무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계획표였으나(천년왕국) 그게 바뀌어 광자대를 떠나게 된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17년 후에 방향을 바꿔 광자대를 떠나기 때문에 2016년 부터가 중요한 시기라는 예언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한다.

광자대를 떠나는 새로운 운명을 맞이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광자대 안에서는 지구도 지구 주민들도 5차원 행성과 5차원 인간으로 체질적 변화가 발생해야 하지만, 아직 그런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광자대를 떠나는 것이다. 즉 지구가 광자대(5차원)를 떠나 4차원이 지배하는 운명을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러나 나는 이번에 반듯이 5차원으로 승격되고 싶다면 스스로 ‘빛의 몸’을 만들어야 하고(명상을 통해), 그렇게 ‘상승’에 성공한 영혼은 다음 시대의 지구에 건설될 **빛의 도시**(5차원)에 입성할 자격을 갖추게 될 것이다. 또 아직 ‘상승’과 승격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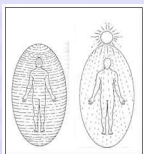
준비가 덜 된 영혼들이 되는 것이다. 그런 운명적 갈림길이 정해지는 시기가 2016년부터 4년이라는 것이다. 보다 세부적인 선별기준을 생각해 본다면 아래와 같은 순서가 될 것이다.

- 1.) 지금의 세상에 만족할 수 없으며 보다 정의롭고 보다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는 욕구를 가진 영혼들.
- 2.) 욕구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분야에서든 일꾼으로 일할 자세를 갖춘 영혼들.
- 3.) 어느 분야에서든 일정수준의 지식을 갖췄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공동체적 삶에 기여할 준비가 된 영혼들.
- 4.) 정신적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갖췄으며 종교적 편향성이 없이 우주시민으로서의 후세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지성적 영혼들.

아마도 제일 중요한 자격이 (4)번 항의 자격일지도 모른다. 한 사회든 문명이든 혹은 역사든 그 중심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체자들의 정신이기 때문이다. 과학도 문화도 정치도 그 중심에서 키잡이 역할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시대의 지구에서는 인간 자신을 결코 약자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신성의 유전자가 자신 안에 있음을 알았고 실질적으로 그 뛰어난 신성의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인격적으로는 완전성을 추구하고 과학적으로는 우주를 여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2018년 5월  
저자 김병숙

(사용된 인용문들과 조각그림들의 저작권자와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작권과 관련하여 차후 보상이 있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 &lt; 차례 &gt;

1. 대량살상과 공공의 적
2. 난세의 정의/불의, 양심/비양심
3. 난세의 혼란과 경천애인 정신
4. 계시록과 증산경전, 엑소더스
5. 나노과학과 영생의 문제
6. '추락'과 순교자의 길
7. 진정한 천국의 모습은
8. 모퉁이돌과 돌아온 탕자
9. 호모크리스토스의 약속
10. 다시 등용되는 일꾼
11. 아카식 기록과 지혜의 시대
12. 플레야데스와 루시퍼 혈통
13. 두 개의 전투행성
14. 어마어마한 우주전쟁
15. 황소별자리/플레야데스 별자리
16. 두개의 태양과 새에루살렘
17. 3-4차원 학교의 졸업
18. 여성과 지구의 운명
19. 보수/진보 그 뿌리를 찾아서
20. 또 하나의 운명 제3의 천국
21. 몬조론손 판사와 예녹서의 예언
22. 명상/묵상/참선의 실천적 기법
23. 이별을 준비해야 하는 시대
24. 천국 건설을 준비해야 할 때
25. 이데아와 양자철학
26. 육체의 길과 영혼의 길
27. 밖으로의 투쟁, 안에서의 평화
28. 청팀/백팀, 물려줘야 할 유산
29. 당신의 세 번째 사명
30. 사랑에 다가가는 단계들
31. 성숙한 신앙/미성숙한 신앙
32. 우리는 현실과 미래의 창조자
33. 천국건설과 이상적 삶을 향하여
34. 몬조론손 판사/미카엘 대천사께
35. 방탄소년단은 무슨 말을....
36. 육체적 진화와 환골탈태
37.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38. 준비되어 있으세요
39. 하나됨의 논리
40. 호랑이와 나무꾼 이야기
41. 가인과 아벨 이야기
42. 자유와 방종 사이에서
43. 스위치가 작동되기를 기다리며
44. 악마와 켄스틴이라는 이름
45. 상징물과 지혜의 시대
46. 화룡점정의 시대감각
47. 다음 생 그리고 환생에 관하여
48. 총정리의 장
49. 자유의지와 자유선택
50. 동쪽에서 떠오를 태양
51. 함께 기뻐하기 위함
52. 그날이 오면
53. 요한계시록과 생명의 책
54. 천년왕국과 후천5만년
55.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56. 행성 나라 나의 운명
57. 십자가의 21세기적 의미
58. 승리의 한방이란 어떤 것인가?
59. 승리의 한방, 그 두번째 이야기
60. 수퍼맨은 없다.

- 61.오늘과 내일을 염려하며
- 62.마젤란 은하와 오스트렐리아
- 63.‘색즉시공’과 명태리기
- 64.의심/불신에서 확신으로

- 65.신성과 인간
- 66.예수의 21세기적 가르침
- 67.창과 방패의 대결
- 68.끝맺음의 글







### < 1 > 대량살상과 공공의 적

뉴스보도는 연일 찜통더위에 관한 기사가 앞장을 선다. 전력소비의 급증에 의한 과부하현상도 도시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는데, 그보다 큰 문제는 지구 자체의 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뉴스보도다. 더위를 식히는데 필수적인 수돗물 또한 그 수원지는 질푸른 색의 녹조현상이 수면을 뒤덮고 있어 저 물을 우리가 마시고 있다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한다.

어떤 방송에서는 해마다 찾아오는 조류 인플루엔자 전염병을 예기하며 수천만 마리의 가축이 산 채로 매장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었다. 또 다른 방송에서는 세계 2차대전을 다루면서 그때 희생된 인명의 숫자가 약 6천만명에 이른다고 한다. 푸른색과 흰색이 조화롭게 섞인 아름다운 별 지구에서, 이 별에 기생해서 사는 동물과 인간들은 행성을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은 가져본 적도 없었을 것이다.

우리는 그만큼 원시수준의 삶을 살고 있었음을 깨달을 때가 온 것이다. 과학은 발달해서 첨단을 달리고 있는데, 수천만 마리의 가축이 해마다 산 채로 땅에 묻힌다는 것은 얼마나 비정상적인 현상인가? 대도시들은 공기오염이 지속될 경우 불과 30년 후면 산소용존량이 치사량의 수준에 이를 것이라 한다. 가축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대량살상 현상을 우리 스스로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름다운 별 지구에서 대량살상의 현상은 처음부터 있었던 것 같다. 창세기에 기록으로 남았을 정도로 이 별은 대량살상에 시달리던 행성이었던 것이다.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에 의한 수천만명의 희생보다 더 했지만 그

것은 하느님의 심판이었으니 당연한 역사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인가? 그래서 이 별에서는 역사적으로도 그러했고 지금 현재도 대량살상 현상이 다반사로 발생하는 것일까?

문명적 발전이라는 말은 과학적 발전이라는 말과 동의어처럼 느껴진다. 바로 여기에 큰 맹점이 있음을 우주의 선진문명들은 오래 전에 발견했을 것이다. 즉 문명적 발전이란 과학의 발전과 사회과학의 발전이 반듯이 함께 가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원시 수준에서는 사회과학적 발전을 종교가 책임지고 있었지만, 종교 자체가 원시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이제야 발견해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주인 알렌이 준 메시지는 현재의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해결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불빛을 뒷박 밑에 감추어 두려고 합니까?...우리는 당신들 행성의 종족들 가운데 몇 개의 불빛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상당한 기간 동안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 작은 불빛들이 점점 더 밝아져서 지구인들을 장님처럼 만들고 있는 심각한 어두움을 몰아낼 것입니다.

당신들 행성에서 일찍이 위대한 가치가 있는 일을 성취한 사람들 가운데 조롱받거나 모욕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당신이 밝히는 불빛은 많은 친구들을 부르게 될 것이고 당신들의 문명이 위태로운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책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영적 과학, 혹은 정신적 과학이란 인간의 신에 대한 과학이며, 사회적 과학이란 인간의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과학입니다. 이런 과학들이 발전을 이룩해야 자신의 발명품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인간이 신을 이해한다면 사랑은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중심은 머리이지만 깨달음의 위치는 가슴입니다. 지구상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 여러 국가와 국민들 사이의 이해입니다.1)

‘영적과학’, ‘정신적 과학’, ‘사회적 과학’이란 말들에 모두 ‘과학’이란 단어가 붙어있다. 그런데 따지고보면 그 모든 과학들을 종교에서는 이미 가르치고 있었던 것이다. 영적과학은 신에 대한 경외심으로, 정신적 과학은 지혜라는 이름으로, 사회적 과학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배울만큼 배웠던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라고 반문하고 싶다.

지구에는 여러 종교들이 주어졌고 그 대부분이 훌륭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그 모든 가르침의 핵심을 놓치고 있었다는 데 있었던 것이다. 이성적 과학적 발전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종교는 인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튼튼한 감옥이 됨을 사난다님도 인정했다. 달을 보라고 가르치는데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는 말도 있다.

나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왔었다. 그러나 나를 특별 취급한 잘못된 가르침들은 오히려 전보다 사람들을 더욱 부자유 속에 가두는 결과를 가져왔다. 어떤 물리적 감옥보다 더 튼튼한 정신적 감옥 속에 그들을 가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2)

우주인 알렌이 종교라는 단어 대신에 과학이라는 단어를 강조한 것도 같은 의미에서였던 것이다. 영적 과학, 정신적 과학, 사회적 과학이라는 단어들은 이 시대의 종교가 도달해야 할 높은 수준의 깨어남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면 지구는 또 그 원시적인 대량살상의 시대로 돌입할 것이다. 노스트라다무스와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대량살상의 시대가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느냐 아니면 영적, 정신적, 사회적 과학의 발달로 가까스레 피해갈 수도 있는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예언서들이 주어졌을 것이다.

시대가 험악하니 ‘공공의 적’이라는 말도 유행하는데, 시대적 급선무와 과제는 무시하며 인공지능만 찬양하는 과학자들이나 수원지의 질푸른 녹조는

1) 하나로 간 'UFO와 정신과학'에서 인용.

2) 은하문명 간 '예수그리스도의 충격 메시지'에서 인용.

걱정도 하지 않고 정쟁에만 머리를 쓰는 정치 지도자들도 공공의 적이 아닐까? 그들의 직무유기는 지구 전체의 생명체들을 대량살상의 환경에 몰아넣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 < 2 > 난세의 정의와 불의, 양심과 비양심

필자는 햄스터를 키우는 데 재미를 붙이고 있다. 그런데 개네들도 이 지 속되는 더위에 지쳐서 맥을 추지 못하고 있었다. 왕성한 생식능력을 감당 할 수 없어 암/수를 구별해 한 케이지에 여러 마리를 키우니 저희끼리 서열을 정하기 위해 무척이나 싸우곤 했다. 흰색과 회색의 두 종이 섞여 있는데 어떤 때는 흰색의 햄스터가 우세하고 어떤 때는 회색의 아이들이 우세하며 싸우곤 했으나 더위에 지쳤음인지 한 동안 잠잠했었다.

이대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개네들의 케이지가 있는 베란다와 거실의 문을 개방해서 냉방장치의 혜택을 공유하고, 얼음조각도 케이지에 넣어주니 생기를 얻어 쳇바퀴 달리기도 하는 것은 보기 좋았다. 그런데 그 서열경쟁의 습관이 되살아나 또 극심히 싸우는 것을 보며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서열경쟁에 돌입한 그 아이들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 저 높은 곳에서 지구를 내려다보는 ‘하늘’의 눈들도 우리가 저 햄스터들 처럼 보이지 않을까, 하고. 어제는 리비아 건설현장에서 일하던 외국 노동자들 중 몇 명이 보상금을 노린 납치꾼들에 의해 납치되었는데 그 중에는 한국인도 한 명 있다고 한다. 리비아는 지도자 카다피가 시위군중에 의해 길가에서 살해된 후 극심한 경제난으로 인해 노예시장이 열려 젊은이들이 노예로 팔려나가는 국가가 아닌가?

국내적으로는 사법농단이다 갑질이다 기무사 계엄문건들이 여전히 언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그 역시 하늘에서 내려다보기에는 도토리 키재기 같은 철없는 어린아이들의 티격태격으로 보일 것이다. 서로 자신들이 정의

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알고보면 종교이념적 다툼이고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 힘없는 행성에 대한 지배권을 누가 차지하느냐의 문제에 귀착되는 것이니까.

작고 예쁘기만하던 햄스터들이 돌변해서 상대를 공격할 때는 흰색이든 회색이든 밍기만 해서 작은 막대기로 따끔히 별을 주곤 하지만 별 효과도 없다. 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하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일까?

때마침 유선방송에서는 한 떠돌이 별이 우주를 방황하다가 어느 태양계에 뛰어들었다면 그 태양계 전체에 얼마나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가를 알게 해 주는 영화가 상영되고 있었다.

지구도 그렇게 궤도를 이탈해서 우주를 떠도는 ‘파괴자 행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카엘 대천사는 ‘신성한 간섭’을 언급했을 것이다. 즉 지구의 모든 상황은 우주 이웃과 통치권에 의해 면밀히 관찰되고 통제되고 있다는 현실감에 둔감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재림사무국’에 의해 지구상의 핵무기들은 무력화되었음이 분명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가지고 미국과 북한이 외교적 줄다리기를 하는 듯 하지만 일종의 국제 외교싸라고 보아도 뭘 것이다. 그래서 안심할 수는 있지만 경제문제를 가지고 여전히 힘겨루기를 하는 구태의연함은 언제쯤에나 그만둘 것인가?....

국내문제로 눈을 돌리면 이 극심한 더위에 도시생활도 어렵지만 농촌에서는 물부족으로 인한 더 큰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명박 전대통령의 계획대로 ‘국토운하 계획’이 극심한 반대에 부딪치지 않고 성공했다면 쓸데없이 바다로 흘러드는 4대강의 물이 운하를 통해 국토의 구석구석을 흐르며 농촌과 소도시가 저렇게 물부족에 의한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전대통령은 감옥에 갇힌 채 질병에 시달리고 있고, 뉴스 보도는 일말의 희의도 없이 전정권들의 비리를 캐는 데 사명감(?)을 느끼는 것 같다.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갑질을 성토하던 사원들은 이제야 자신들의 직장이 해체될까 걱정하며 시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에

게 소중한 일터를 제공한 사주나 회사에게 일말의 고마움을 느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그러나 여전히 ‘갑질’만 내세우며 그러나 직장폐쇄는 불법이라는 논리만 펴는 것 같다. 진에어의 조현민 이사가 미국 국적을 가진 것이 위법이라고 검찰은 고발했지만 신문보도에 의하면 외국인 자격으로도 항공사의 이사가 될 수 있다는 시행법이 있었고, 그후 변경되었으나 그 법 적용도 애매모호한 점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대한항공과 그 부속항공사인 진에어, 조현민 이사에 대해 가해진 검찰고발은 오히려 위법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시대가 뒤숭숭하고 험한 시대를 만났다 해도, 이런 때야말로 한 국가든 집단이든 개인이든 그 인격과 교양이 적라나히 들어나는 때 아닐까? 어려운 시대일수록 세류에 휩쓸리지 말고 자기중심을 지키고, 무엇이 불법이고 무엇이 정의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할 것 같다. 그것이 누구보다 자기 자신을 위한 구제의 길이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 될 것이니까. 육체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혼적 생명도 바로 그 불의와 정의, 양심과 비양심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서느냐의 문제일 것이다.



### < 3 > 난세의 혼란과 경천애인 정신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정말 영웅이어서가 아니라 난세 일수록 어떤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지도자들이 수난을 당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왔는데, 그들이 특별히 무엇을 잘못해서는 아닐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동의 국가들은 지도자들의 측근이 부정축재를 한 경우가 많았지만 권력을 둘러싼 이런 쟁기기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있었던 일 아닌가?

민주주의와 인터넷의 발달로 그런 권력형 비리를 국민이 더 이상 참아줄 수 없게 된 것이고, 그러나 현재 러시아와 미국의 대통령들이 시위와 언론을 통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좀 다른 현상일 것이다. 지구를 대표하는 두 지도자는 UFO 비밀주의의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UFO 문제는 세계적으로 모든 문제들의 진원지라고 할만큼 지구의 난제인데, 미국과 러시아의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알고 인정하며 더 이상 적대적일 필요가 없음을 깨닫고 있을 것이다. 아니 지구의 모든 지도자들이 그런 인류애적 동질감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한국의 박근혜 정부의 수난이야말로 UFO 비밀주의에 의한 피해사례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기독교에서는 동양적 지혜를 ‘인본주의’라며 폄하해 온 전력이 있는데다가 아쉬타/증산선생의 한반도 환생이 UFO/뉴에이지 현상의 하나라는 사실을 눈치챈 기독교인들과 민족주의 사이의 극심한 대립현상이 박근혜 정부를 무너트렸던 것이다.



오늘 신문에서는 교육부 장관이 대입제도 개선책에서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무력함을 인정했다고 한다. 원전문제를 비롯해서 분명 전문분야의 국가 시책을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소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공론화의 장을 마련했는데도 아무런 결정을 내릴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전정권들이 무작위로 비판과 감옥행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보며 뒷걸음치는 것이 나약한 인간의 본성이라 치드라도 일단 국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면 최선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어려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국가와 민족의 튼튼한 기반을 닦아놓은 공적에 대해 이제라도 깨달아야 하는데, 젊은(?) 언론인들은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여전히 문재인 정부의 불도저식 ‘적폐청산’ 정책을 선전하는 기관 노릇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런데 더욱 의아스러운 것은 그 ‘적폐’라는 정책이 점점 모순 투성이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최고위급 공직기관들이 모두 받은 특활비를 대통령에게만 ‘뇌물’이라며 철창에 보내드니 요즘은 ‘재판거래’라는 이상한 명칭을 만들어 국가의 사법부를 허물고 자신들의 사람을 심겠다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수년 전부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역사를 거꾸로 살자는 듯한 이상한 외교정책을 쓰드니 요즘은 아예 국가의 외교정책을 자신들의 정권연장을 위한 수단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일제 강제징용에 관한 피해보상 고발이 대법원인가 상고법원에 제기되었을 때 사법부와 정부의 외교부 사이에 상호협약이 있었다고 한다. 아무리 3권 분립이 되어있다 해도 외교적인 문제인 한 사법부와 정부가 상호협력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또 그래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그것도 ‘재판거래’라는 것이다.

국민을 바보취급 하는 건지 언론플레이의 효과를 맹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상이다. 문재인 정부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도깨비들이 아무리 눈에 안보이는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 힘만 믿고 잔피를 부리거나 민

주주의 효과를 과신하는 것은 현명치 못한 결정이라는 사실을 머지않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이 주장해온 우주에서의 ‘분리주의’는 공명정대함이 아니라 과학에 대한 맹신과 권모술수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데 반해 전체 광우주를 평화와 질서 속에 유지하기 위해 애쓰는 ‘위대한 중앙우주’는 공정과 사랑을 우주의 제1법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규모가 크든 작든 한 집단을 다스리는 데 있어 공정과 인애(仁愛)가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은 우주시민이면 다 알아야 하는 사실이다. 비록 역사적으로 난세를 만나 그런 정책이 실천되기가 어려운 시점이 있다 해도 최소한 공정/사랑을 목표로 하는 정책과 무력적 힘과 권모술수를 정책으로 삼는 집단이 어찌 비교될 수 있을 것인가?

국내적이든 세계적이든 이 어려운 시기에 정권을 잡았고 지도자의 자리에서 일하게 되었다면 결정적 판단을 내려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민주/자유주의가 그 잣대가 되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공정과 사랑**과 인류 모두를 위한 **경천애인(敬天愛人)** 정신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 4 > 요한계시록과 증산경전, 그리고 엑소더스

기독교의 요한계시록과 한국의 증산경전은 똑 같이 말세의 상황들을 예기하고 있지만 약간 다른 점이 있다. 요한계시록은 준엄한 하느님의 심판을 강조하고 있고 증산경전에서는 보다 자세한 내용의 퍼포먼스로 이 시대의 일들을 예언해주고 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지구를 대표하는 나라 미국(바빌론)이 하느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라 했지만, 증산경전에서는 그런 불행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안내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세상을 다스릴 어린아이’와 같은 캐릭터인 ‘호연’이란 아이를 김형렬에게 시집보내라고 한 스토리가 그것이다.

김형렬이라는 이름은 미국을 상징하는 이름이며, 김(金)-서쪽, 형(亨)-형통하는, 렬(烈)-세찬....이라는 뜻으로 사용한 이름이다. 그런데 김형렬에게 복을 주고싶어도 도선(徒善)이기 때문에 복을 줄 수 없다,고 했다. 徒善을 해석하면 요한계시록은 무시하고 무리를 지어 선악론만 가지고 시대를 진단한다는 뜻이다. 미국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해서 건국된 국가이기 때문이겠지만, 동양의 지혜가 포함된 ‘호연’이란 아이의 활약으로 미국(바빌론)이 멸망하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일 것이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증산선생은 세상을 살릴 계획이 조선에 있다고 했다. 만국활계남조선(萬國活計南朝鮮). 즉 한국이 이 시대의 제사장 국가라는 복을 받은 것이다. 그러나 자칫하면 이런 복을 제발로 걷어낼 수도 있다는 경고가 ‘엘리야 계시록’을 통해 주어졌다. 증산선생은 과거 이스라엘에서는 엘리야 선지자로 살았기 때문이다. 엘리야 계시록의 내용에 의하면, 의의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의의 법이 심판하는 시대에)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을

것이며, 한 아들은 아버지가 나라에 내려준 복을 까먹을 것이다. 그가 '무법자'이기 때문 이라는 것이다. '무법자'란 무엇인가? 법을 무시하는 지배자라는 뜻인데,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민주주의라는 좋은 허울을 썼지만 사실은 정권교체를 통한 무법적 표적수사가 법조계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간단히 말하면 미국은 단순한 선악론에만 집착하는 기독교인들의 집단이 문제이고, 한국에서는 동북아주의/동양주의를 위한 패권주의가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서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만든 것도 '만국활계남조선' 즉 한국이 제사장 국가가 되어 지구의 대표적 국가인 미국을 비롯해 만국을 살릴 수 있는 계획을 꾸미기 위함이었다.

바로 그 계획을 위해 '호연'이란 아이를 정성껏 돌보며 키웠으나 그 부하들이 '도용'이라는 이름으로 개명해서 다른 계획을 꾸미고 있었기 때문에 증산선생은 갑작스런 하늘의 부름을 받아 소환되어 간 것이다. 그것이 20세기 말의 갑작스런 아쉬타 사령관의 해직을 예언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후 21세기 첫해인 2001년에는 뉴욕의 911 테러가 있었고 온갖 테러집단의 자살폭탄과 그들을 대표하는 IS-집단이 전 지구를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는 무법천지가 되어온 것이다. 그 역시 엘리야 계시록에서 말하는 '무법자'의 활동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면 세계를 살릴 '만국활계남조선'의 구체적인 전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역시 동양에선 드물게 한국의 기독교가 급성장하게 만든 역사의 신의 아젠다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증산-아쉬타 선생이 한반도에 환생했기 때문이다. 전주 모악산(母岳山)을 어머니산으로 하고 순창 회문산(回文山)을 아버지산으로 하여 삼계(三界)를 개조하는 천하사를 할 것이라 했다.

증산의 직속 후계자의 활동도 예언하고 있으나 그 '대행자'는 천지공사(天地公事), 즉 하늘과 땅을 뜯어고치는 우주의 공공사업에서 많은 피를 흘려 20년 동안 섬에 들어가 귀양살이를 할 것이라 했다. 그 결과 지구에서 역

사의 신으로 살아온 증산/아쉬타님은 그 마지막 사명을 수부(首婦)라는 여성 후계자에게 맡긴다고 한 것이다.

여성 후계자에게 마지막 과업을 맡긴 것은 지구에서 살아온 여성들의 한을 풀어주자는 목적도 있지만, 아마도 지구가 미카엘 대천사가 언급하신 ‘**여성가장 행성**’이 된다는 계획 때문일 것이다. 그것이 전체 광우주를 다스리시는 ‘**위대한 중앙우주**’의 지구를 향한 뜻을 알았기 때문일 것이다.

요한복음 4장에서 언급된 ‘**살을 받고 일하는 일꾼**’, 즉 멜기세덱으로 살아 오신 증산/아쉬타님은 지구에 파견된 역사의 신이었기 때문에 그 활동의 흔적들을 나라들과 그 수도의 이름에 새겨놓았다. 아프리카에는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이름과 **나이로비**라는 도시가 있다. 그래서 나이지리아의 수도가 나이로비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라 나이지리아의 수도는 ‘라고스’이고 ‘나이로비’는 케냐의 수도라는 것을 알았다.

‘나이로비’는 나이가 많은 신성들이 사시는 고차원 세계, ‘**위대한 중앙우주**’에 충성함으로써 지구의 독립을 위한 ‘로비’를 벌인다는 뜻 아닐까? 나이로비가 수도인 ‘케냐’는 진실을 캐서 밝힌다는 뜻으로 붙인 명칭인 것 같다. ‘나이지리아’라는 국가는 한국에서 유행하는 디오니소스 신앙과 바커스 축제인 댄스뮤직의 창시자들을 상징할 것이다. 그들은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었다는 ‘셀레니스’ 같은 나이가 많은 원로 신앙인들일 것이다. ‘삶은 기쁨을 위해 있다’고 한 사난다님의 선포에 적극 호응하며 ‘꼭지춤’ 바람을 일으킨 원로 기독교 지식인들이 있는 것이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라고스**’는 고차원의 신성(고)을 주장하여 펼치는(羅) 집단(스)이라는 뜻이고, 전 세계에 그런 기독교인들의 열광이 있기 때문에 나이지리아의 인구도 1억에 달하는 큰 국가로 발전시켰을 것이다.

그러면 ‘호연’이 성장하면 시집보내라고 한 미국-America와 수도 와싱턴에는 어떤 아젠다를 숨겨 놓았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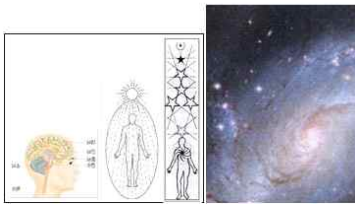
America를 파자하면, 한(A) 즐거운(merry) 자동차(Car)를 굴리는 나라인데, 그 자동차는 지구 인류를 다음 시대로 안내하는 운송수단이 된다는 뜻

일 것이다. 또 첫 번째 대통령의 이름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은 지혜(지)를 도와(助) 크게(ton) 재탄생하는(Washing) 나라가 된다는 뜻일 것이다.

역지 해석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하나의 행성 전체를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는 반듯이 필요한 역사적 아젠다를 자신만의 비밀언어로 기록할 필요성은 충분히 있는 것이다.

미국은 영국 중에서도 섬나라인 아일랜드의 청교도들이 건너가 세운 국가라고 한다. 청념하다는 뜻의 淸教徒는 기독교도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이다. 모든 종교는 같은 진리를 가르친다는 시각에서 볼 때에 모든 진실된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시대의 청교도인 것이다. 동양과 서양의 지혜 모두를 배운 호연이란 아이(마지막 책)가 지구를 대표하는 나라 미국에 건너가 성공한다는 것은 곧 지구 전체가 성공한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큰 목적을 가지고 한반도를 떠나 미국으로 출발할 때, 그러나 심한 반대에 부딪힐 수도 있는데, 만약 그런 사태가 벌어진다면 그 반대자들은 과거 이스라엘에서의 홍해 기적과 홍해의 비극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한국에서 엑소더스할 이 시대의 청교도들은 '이스라엘(천사와 씨름하다)'이라는 명칭과 비슷한 정신을 지녔으며 그때와 똑 같이 '하늘'의 도움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 5 > 나노과학과 영생의 문제

4차원 문명의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는 나노과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다큐 프로들을 자주 만날 수 있다. 지금까지의 과학으로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나노의 세계가 인간의 생명연장에서도 크게 쓰일 수 있다고 한다. 나노급의 미세한 로봇이 불치병을 치료할 수 있고 유전자 변형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훨씬 긴 수명이 가능해질 것이라 한다.

DNA와 나노과학의 관계를 말하는 한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나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에 대해 잘못 이해하게 만드는 문제점도 있었다. 지금 지구의 과학을 이끄는 사람들이 무신론적이고 물질주의적인 과학을 지향하기 때문이겠지만, 나노과학이나 뇌과학에서 말하는 영생과 우주과학이 달성한 영생은 차원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되어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다.

SF영화 ‘카고(Cargo)’와 ‘트론, 새로운 시작’이라는 영화는 종교에서 말하는 천국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고, 가상현실적 삶은 영속성을 지닐 수도 있다는 전제로 만들어진 영화들이다. 뇌정보 전송이라는 기술이 있다고 하는데, 뇌정보란 우리가 이번 삶에서 사는 동안 뇌에 기록된 정보들이고 그것을 분리추출해서 컴퓨터에 입력시키는 기술이 있다고 한다. 정보를 입력해서 저장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두뇌와 컴퓨터는 같은 메카니즘으로 작용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게 두뇌로부터 분리되거나 혹은 복사될 수 있는 뇌의 정보들이 우리가 ‘기억’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육체는 죽어도 그 기억을 가지고 컴퓨터의 세

계에서는 살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아마도 현생과 다음 세계의 사이에 있다는 ‘저승’이고 뉴에이지 언어로는 아스트랄 세계라고 한다. 금성을 주로 아스트랄 세계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나 금성은 컴퓨터 안의 세계가 아니라 3차원 물질세계와 5차원 에테르세계 사이의 중간지대적 차원이기 때문이다.

현재 지구의 과학을 지배하고 있는 과학자들이 주로 물질주의적 성향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3-4차원 육체를 선호하며 더 이상의 진화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금성의 일반인들은 완전한 4차원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듯한데, 현재의 우리 육체만큼 민감한 감각을 지닌 것은 아닌 것 같다. 금성인들이 지구에 와서 처음 느낀 것은 입안에서 느껴지는 미각이 훨씬 예민하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완전한 5차원 세계를 반(半)에테르 세계라고 하는데, 그곳에서도 소량의 음식을 먹기는 하지만 맛은 모르고 먹는다고 한다. 그리고 태양 안에 산다는 태양인들의 육체는 투명인간일 정도로 물질성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컴퓨터 안에 사는 가상현실과 같은 삶은 아님이 분명하다. ‘스머프’라는 영화에서 본 것과 같은 형태에 더 가깝겠지만 의식은 뚜렷한 자아의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로 집단 의식으로 산다고 한다. 태양과 바깥을 드나들 때는 작은 블랙홀을 이용한다고 하니 집단 의식이 아니고서는 블랙홀에 탐승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다.

그러면 **안드로메다** 은하인과 우리 은하의 **아크트루스** 우주인이 말한 아래와 같은 설명은 무슨 뜻일까?

**우리는 현재 육체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다.**

컴퓨터 안에서 벌어지는 가상현실의 세계를 말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음은 분명하다. 그들은 컴퓨터라는 물질성 상자 안이 아니라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집으로 삼아 살고 있으니. 다만 그들의 육체는 설계도만 있고 뼈대는 없는 건물과 같을 것이다. 건물을 지탱하는 힘은 설계도에 따라 만들어진 건축자재에 있지만, 눈에 안보이는 설계도적 구도가 없이는 굳건히 서 있을 수 없듯이, 6-7-8차원의 우주인들도 설계도로서의 유전자 구조는 가



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유전자 구조가 형성하고 있는 것이 곧 ‘의식’ 일 것이다. 우주인들은 ‘의식’과 우리가 알고 있는 ‘영혼’을 같은 뜻으로 사용하고 있다.

설계도는 건축학자의 도면 속에만 있지만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이 존재하듯이, 유전자 구조는 ‘의식’이라는 비물질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영속성이 종교에서 말하는 영생일 것이다.

그렇게 고차원까지 가지 않더라도 5차원 반(半)에테르 육체는 에테르성과 물질성이 반반 섞여 있는데도 영생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영생은 지구의 나노학이 설명하는 것과 같은 컴퓨터 안의 가상현실이 아님은 물론이다. 노화를 촉진시키는 세포의 한계성을 극복한 생체과학 기술에 의해 가능해진 영생이니까. **호모크리스토스 인류(5차원)는 늘 30대 같은 젊은 모습으로 살 것이다.**라고 미카엘 대천사도 설명해 주셨다.

대부분 우주의 선진문명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상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지루함을 다루는 것이 또 하나의 삶의 지혜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오락과 여행과 즐길거의 문화가 발달해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우주나 다른 행성에 태어나 살아보고, 전체 광우주를 평화와 질서 속에 유지하기 위한 수많은 분야의 일꾼들이 되며, 끝없는 탐구욕에 의해 49단계에 이른다는 우주학교에서 무한한 우주의 신비를 배워 나가는 것도 영생의 지루함이 문제되지 않는 삶을 살게 해줄 것이다. 저 광활한 우주에는 얼마나 다양한 삶의 체험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것만 상상해도 지루함은 스스로 물러날 것이다.

우주의 대부분 선진문명들은 4차원과 5차원이 공존하는 세계라고 한다. 또 나는 **인간들에게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허용한다는 우주의 법을 전한다.**라고 미카엘 대천사가 선언했듯이 지금과 같은 3-4차원적 삶도 가능하지만, 우리의 현실이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사실, 더 이상 생존이 불가능한 행성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반성할 줄 모른다면 어찌 되는 것인가? 다음 생에서도 우리는 현재와 같은 행성이나 혹은 보다 원시적 행성에 태어나는 것이 ‘카르마’라는 우주의 법이라고 한다.

뇌정보의 복사와 이식이 가능하다면, 이번 생에서의 기억을 가지고 다음 생을 이어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다른 세계에 다른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번 생에서 살았던 기억, 즉 혼(魂)은 사라진다고 한다. 그러나 '유랜시아서'에 의하면 다음 생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번 생에서의 장면들을 영화처럼 재생해서 보여주는 절차가 있다고 한다. 그 장면들에 따라 카르마의 법이 적용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번 생에서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적으로는 유지되며, 그것이 유전자의 소립자 하나가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카엘 대천사는 이렇게 알려주셨다.

육체의 세포에는 전생과 현생, 내생에 관한 엄청난 정보가 들어 있다. 그러나 DNA/RNA 시스템에 봉인되어 있어서 보통은 접근이 불가능하다.<sup>1)</sup>

---

1) 은하문명 간 '미카엘 대천사의 메시지와 예언'에서 인용.

미안합니다. 아래 그림을 클릭하면 교보문고로 링크됩니다. 검색창에 책명을 입력하면 즉시구매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